

2013년
GCF 사무국 출범

2012년 11월 26일 ~ 12월 7일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카타르 도하)
- GCF 유치국가 최종 인준

2012년 10월 18일 ~ 20일
GCF 제2차 이사회
(대한민국 인천 송도)

2012년 8월 23일 ~ 25일
GCF 제1차 이사회
(스위스 제네바)

KOREA INVITES **GCF**

인천광역시가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KOREA INVITES
GCF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대한민국 인천 유치에
우리 모두 나설 때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인류!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오랜 세월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은 더욱 심각하며,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들 나라의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면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UN기후변화협약(UNFCCC)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기금이 바로 녹색기후기금(GCF)입니다.

2020년까지 약 80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2013년 출범하게 되며, 향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제기구입니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와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등 6개국이 경쟁 중에 있습니다.

GCF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힘을 모아주세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유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마련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범 정부차원의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여 GCF 사무국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했을 때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GCF 사무국 인천유치를 위한
시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해요~!

- 주변환경 정비하기
- 자전거 타기 생활화
- 에너지 절약하기
- 외국인에게 친절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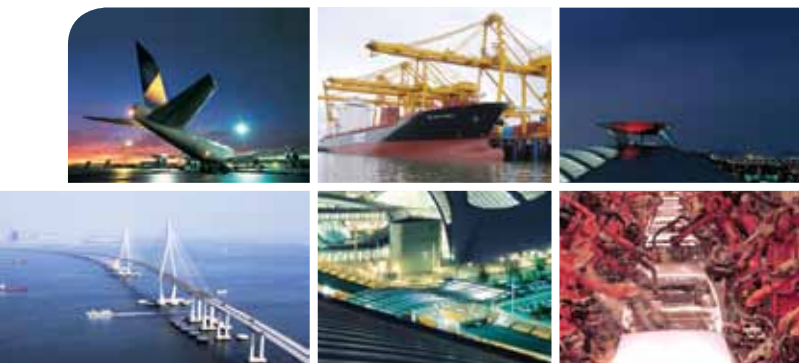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도시
INCHEON 인천입니다

2011년 11월,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GCF 사무국 유치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2012년 3월 인천(송도)을
국내 유치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인천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치도시로 결정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은 동북아시아 경제 · 물류 · 무역의 거점도시로
비행거리 3시간 안에 인구 100만 도시가 61개이며,
20억 명을 만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과
관광 · 레저, IT · BT산업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경제수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SONGDO

송도국제도시는



송도국제도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 모범도시입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2009세계환경포럼」과 「G-20정상회의」에서
‘**친환경 미래 첨단도시를 알기 위해 송도국제도시를 봐야한다**’고
언급했으며,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프랑스 국가개혁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송도국제도시를 모델로 한 에코 폴리스의 건설**’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CNN은 송도국제도시를 ‘**저탄소 녹색 모범도시**’로 10회 이상
방영하였고, Wall Street Journal과 Discovery는 송도국제도시의
건축물을 ‘**에너지와 환경 디자인의 표본**’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Action Plan

- ▶ 2020년까지 BAU대비 온실가스 38% 감축
- ▶ 2020년까지 하수 재이용률 40%, 폐기물 재이용률 76.3%
- ▶ 국내 최대 녹지율 32% 확보
- ▶ 미국친환경건축물 인증(LEED) 획득



송도국제도시는,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을 갖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최적지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국제학교, 글로벌대학 캠퍼스, 센트럴파크 등
교육 · 의료 · 숙박 · MICE · 공원 인프라가 완비된
최적의 근무여건을 자랑합니다. 또한, 저탄소 친환경 도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는 녹색기후기금의
설립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을 갖춘
‘**Compact & Smart City**’입니다.
특히, 2012년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UN기구 전용빌딩인 I-Tower는
친환경인증 최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건물로 UN ESCAP,
UN APCICT, UN ISDR 등 10여 개의 국제기구 입주와 더불어
GCF 사무국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는
인천의 **新성장동력**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GCF 사무국이 유치될 경우,
초기 **연간 약 3,8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인천발전연구원(IDI)은 **인천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연간 약 1,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금융 · 녹색기술산업 · 녹색제품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어 직 ·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유치는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서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국제기구 입지로 남북관계 긴장완화와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역할 수행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